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개선 방안

최 성 근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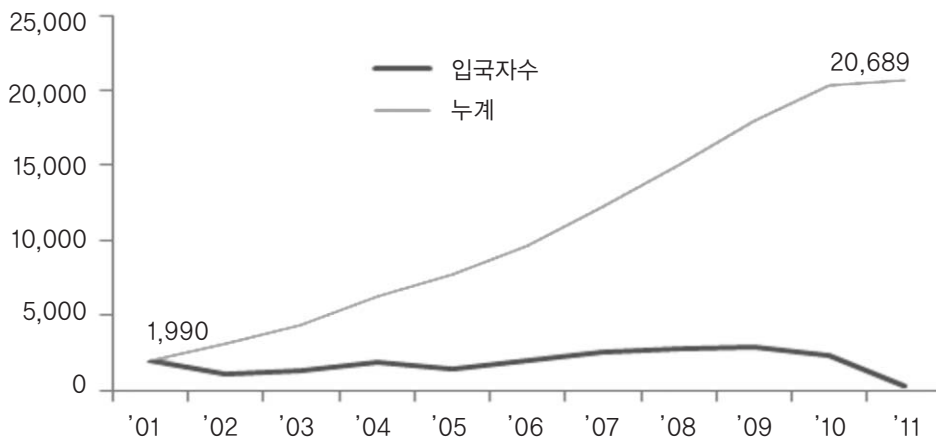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급증하여 현재까지 2만여명에 이른다.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들어 한해 1,000명 이상 남한에 입국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2,000명 이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향후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국내정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취약하다. 둘째, 북한이탈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 탈락률이 높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제적인 효용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착 시스템의 구축 및 성공적 정착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직업 훈련 강화, 농공단지로의 거주 유도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여성 및 청소년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취업과 정착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 이와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제도의 확대 및 멘토링 시스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탈북 청소년 교육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혜택 확대 및 정기 건강검진서비스,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취업 장려금 기준 완화, 적성에 맞는 취업 유도 등이 필요하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2011년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크게 증가하여 2011년 2월 현재 20,689명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이전 국내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수의 일반 주민들로 변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크게 악화되면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 남한에 입국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에 2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02년 이후 연평균 12.3%씩 증가하였으며, 약 2,000명에 불과하던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06년 이후에는 매년 2,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3,000명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미 중국과 제3국에 수만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어, 향후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국내 입국 현황 〉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와 특징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이한 현재 이들의 국내 정착에서 지적되는 특징은 첫째로 경제활동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2009년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48.6%에 불과하며, 동일한 시기에 일반국민의 61.9%와 비교할 때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수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 면에서도 일반국민들은 59.3%와 3.2%를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41.9%와 13.7%를 나타내 이들의 취업난과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만 보아도 일반국민들은 3.2%에 불과한데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무려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며 경제적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해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경제활동 비교 〉

구분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북한이탈주민(%)	48.6	41.9	13.7	52.3
일반국민(%)	61.9	59.3	3.2	3.2

자료 : 통일부,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

취업에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이라해도 국내에서의 직장 생활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에서의 평균 재직 기간은 16.3개월로서 일반 국민의 4년 6개월과 비할 때 취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재직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 재직이 28.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도 전체 5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비록 고용이 됐다하더라도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건강 악화나 보수에 대한 불만 등으로 1년도 못되어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

〈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재직 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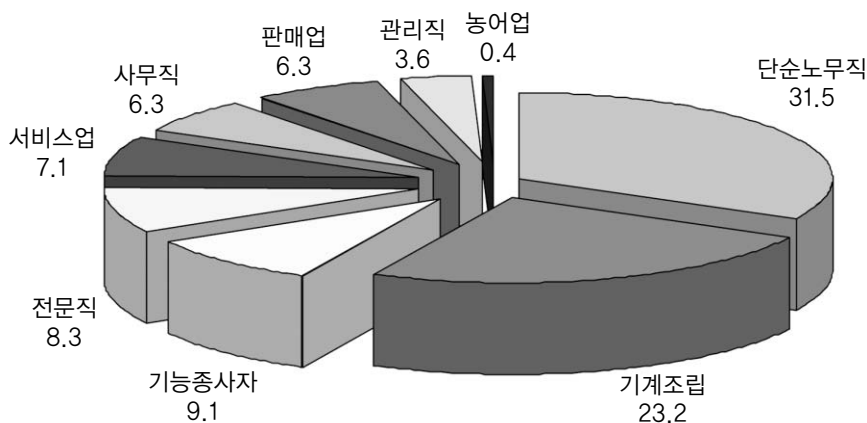
구분	3개월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이상	평균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비율(%)	28.7	11.8	16.9	28.0	14.6	16.3개월	4년 6개월

자료 : 통일부,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

지 못하고 이직을 반복하거나 장기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을 살펴보면 식당 서빙, 공사장의 막일 등의 ‘단순노무직’의 형태가 3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장에서의 전자제품 조립이나 기계조작까지 포함하면 54.7%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위층 탈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나 기술, 학력 등 여러 면에서 취업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노무직의 경우 주로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복지 수준도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직종 현황 〉



자료 : 통일부,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 육체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지 않아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착시기에 따른 추이를 살펴볼 때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약한 경제활동실태는 여실하게 나타난다. 2000년대 초반 입국한 주민들의 실업률은 최근 입국한 주민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오랜 정착시간이 지났음에도 남한에서의 경제활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0년대 초기에 입국한 주민들과 최근에 입국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실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남한 정착 시기별 경제활동 실태 〉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취업자	55.0	43.5	47.7	39.6	35.8	40.6	45.1	36.5	33.3	39.9
실업자	5.0	-	6.8	7.5	4.9	7.8	5.5	8.7	7.1	6.6
비경제활동	40.0	56.5	45.5	52.8	59.3	51.6	49.5	54.8	59.5	53.5
실업률	8.3	0	12.5	15.9	12.0	16.1	10.9	19.2	17.6	14.2

자료 : 통일부, 『201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저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현황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어섰으며 현재 76%(2010년)에 이르고 있다. 매년 입국하는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02년 506명에서 2010년 578명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동일기간에 여성의 숫자는 632명에서 1,79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북한이탈주민의 총합에서 여성의 비율이 68.9%로서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

〈 입국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

(단위 : 명)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2	합계
남자	1,392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8	88	6,439
여자	598	632	812	1,268	960	1,509	1,914	2,197	2,261	1,798	241	14,250
여성비율	30.1	55.5	63.4	66.9	69.4	74.8	75.2	78.2	77.2	75.7	73.3	68.9
인원(명)	1,990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066	329	20,689

자료 : 통일부

성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도 여성의 숫자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약 3,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2011년 현재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가족 단위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20세 이하의 청소년도 함께 증가한 데 기인한다. 특히 10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한해에만 141명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단독 탈북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10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의 숫자는 2011년 2월 기준으로 총 2,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 탈북청소년 연도별 국내 입국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	계
0~9세	55	44	69	40	85	79	108	141	72	6	799
10~19세	154	164	247	183	252	278	255	328	317	19	2,400
합계	209	208	313	223	337	357	363	469	389	25	3,199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학력소지자가 7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16.4%에 불과하여,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대졸 이상을 원하는 남한에서의 기본적인 취업 요건을 충족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별 입국자 비율 〉

구분	미취학 아동	유치원	인민 학교	고등 중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인원(명)	556	188	1,281	14,573	1,889	1,519	683
비율(%)	3	1	6	70	9	8	3

자료 : 통일부

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학력 요건이 없는 단순노무직이나 식당 서빙 등의 직종에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승진이나 고소득직종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이러한 학력에서의 핸디캡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학력 수준은 개선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의 한국에서의 학력은 ‘학력없음’이 76.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2/3이상이 국내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학력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의 학력개선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생계유지가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 등의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 비용의 상환과 북한내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정작 개인의 발전과 자아실현 등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도 현재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로 진학하고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학력 〉

구분	학력없음	중학교 재학/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중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중퇴	대학교 졸업
비율(%)	76.6	3.1	0.3	4.6	0.9	10.4	4.1

자료 : 통일부,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

있으며,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졸업 후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2010년 현재 한겨레 중·고등학교에는 총 17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중학교 4학급, 고등학교 6학급 총 10학급이 운영중에 있다.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시설 현황 〉

학교명	소재지	보호내용	학생수	상근교사
여명학교	서울 중구	숙식, 통학	63명	13명
셋넷학교	서울 영등포구	검정고시	23명	3명
하늘꿈학교	서울송파구 충남 천안	숙식, 검정고시	61명(서울) 13명(천안)	9명(서울) 5명(천안)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시	숙식, 검정고시	19명	6명
한울학교	경기 남양주시	통학형, 검정고시	14명	3명
두리하나 국제학교	서울 서초구	통학형, 검정고시	13명	9명
한민족학교	서울 양천구	숙식, 검정고시	7명	3명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초·중·고 교육과정 중 중도에서 탈락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중·고등학생의 중도 탈락률(중학교 8.5%, 고등학교 9.1%)은 국내 일반 학생의 탈락률(중학교 1.2%, 고등학교 2.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의 원인은 취학 연령의 차이, 남북 교과과정의 차이, 언어 차이, 친구 교제의 어려움, 정체성 결여 등 다양하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학위 과정에서의 중도탈락률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국내 학업에 대한 적응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탈북 청소년의 교육과정 중도 탈락 현황 〉

구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2009학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재학생(명)	341	232	114	687	495	288	183	966	562	305	276	1,143
중도탈락생(명)	12	30	32	74	7	26	26	59	5	26	25	56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4	9.0	14.2	6.1	0.9	8.5	9.1	4.9

자료 : 통일부

국내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현황을 볼 때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총 4만7,368건의 내과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만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평균 2.3건 이상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건강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건수 추이를 보면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07년의 110건에서 2009년 12,979건으로 1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담 과정에서 적지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불안, 열등감, 우울, 피해의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인민감성 등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생활에서 겪은 큰 충격과 함께 탈북 이후 중국 공안 등 보안 당국으로부터의 은둔 및 도피 생활, 제3국에서의 물리적·정신적 학대 경험, 급격한 주거 및 생활 환경의 변화(탈북→3국 체류→수용소→국정원→하나원)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경지방에서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하여 학대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가난 때문에 팔려가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를 겪고, 성적 학대까지 당하면서 심각한 산부인과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탈북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하나원에 입소하는 여성들

〈 북한이탈주민 진료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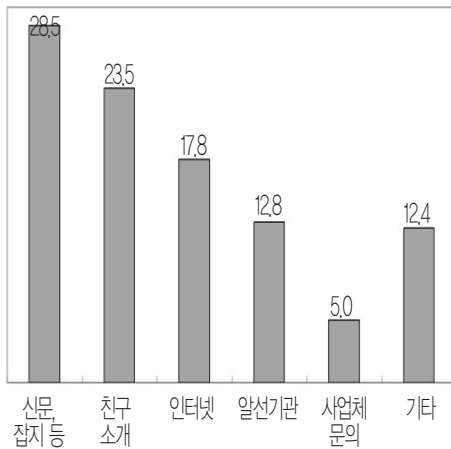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9	계
정신과	110	2,266	12,979	8,146	23,501
내과	11,360	11,051	10,314	14,643	47,368
한방과	3,860	2,266	1,543	1,529	8,277
치과	3,908	4,204	4,784	2,006	14,902
산부인과	664	1,432	1,633	1,613	5,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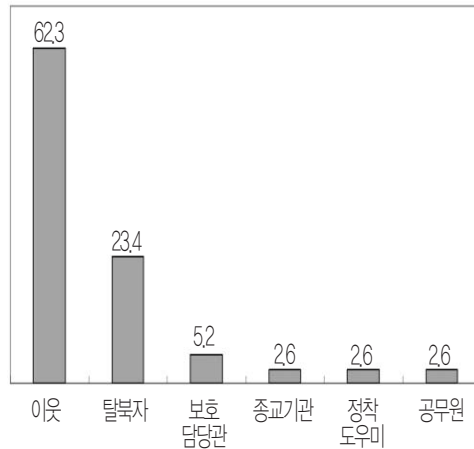
자료 : 통일부

가운데 절반가량이 산부인과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 실제로 2007년 664건에 불과하던 산부인과 진료 건수가 2009년에는 1,633건으로 약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취업정보 획득 경로 〉



〈 취업시 도움요청 대상 〉



자료 : 통일부,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

다섯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의 효용성이 낮아 실제 취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취직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많지만 실제적인 구직 과정에 대한 지원과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구직 과정에서 취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주로 신문 또는 잡지(28.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소개가 23.5%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문 알선 기관의 도움을 받아 취업 정보를 획득한 경우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 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요청한 대상도 정착도우미나 신변보호 담당관 등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적 지원보다는 주변 이웃이나 지인들을 통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1) 하나의원이 올 상반기 탈북여성 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궁암 이환 가능단계'가 67명(46%)이나 됐고, '자궁암 전 단계'가 9명이었으며, 1명은 이미 자궁암 발병한 상태였다. 하나의원의 한 공중보건원(산부인과)가 "지난 1년간 북한이탈여성을 진료한 결과 부인과 질환의 80~90%는 질염이었고, 그밖에 난소 낭종이나 자궁근종, 무월경 등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010. 11.17.

결과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을 구할 때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주변의 이웃인 경우가 62.3%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는 앞서 취업을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2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권의 정착도우미나 신변보호담당관의 경우 각각 2.6%, 5.2%로 나타나, 취업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직업훈련 직종과 실제 취업하는 직종 사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직업훈련의 효과 및 효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분야나, 사무관리 분야 등은 직업훈련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실제 취업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응용 분야나 기계·장비, 의료 분야, 공예 분야는 직업 훈련 비중이 낮지만 취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제 취업과정에서나 혹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실제 지원 효과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노출하고 있다. 통

〈 직업훈련 직종과 취업의 미스매치 〉

순위	직업훈련 직종		훈련후 분야별 취업률	
1	서비스 분야	29.1%	산업응용 분야	46.2%
2	사무관리 분야	26.4%	기계·장비 분야	48.4%
3	기계·장비 분야	14.3%	의료 분야	41.0%
4	정보통신 분야	9.0%	공예 분야, 정보통신 분야	38.7%
5	의료 분야	4.5%	서비스 분야	32.1%
6	섬유 분야, 건설 분야	3.7%	사무관리 분야	30.3%
7	공예 분야	3.6%	전자 분야	28.0%
8	전자 분야	2.9%	전기 분야	27.3%
9	산업응용 분야	1.5%	건설 분야	18.8%
10	전기 분야	1.3%	섬유 분야	9.4%

자료 : 박정란, 북한이탈주민 취업활성화 방안과 제언 2010.

일부에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1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해야 취업 수혜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6개월~1년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이러한 장려금의 수혜자가 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취업 장려금 수혜 비율은 6.4%에 지나지 않으며, 최근 전입한 취업자의 경우에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장려금 수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취업 장려금 수혜 여부 〉

구분		전체(명)	취업장려금(%)	
			받음	받지 않음
전체		637	6.4	93.6
정착기간	2년 미만	134	9.7	90.3
	2-3년 미만	116	10.3	89.7
	3-5년 미만	146	10.3	89.7
	5-7년 미만	136	0.7	99.3
	7년 이상	105	0	100

자료 : 통일부, 『2009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

시사점과 개선 과제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와 함께 이들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중장기적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약 2,5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경 북한이탈주민은 4만 5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안정된 국내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국내 정착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통

일시 남북한 주민의 통합의 가교 마련 및 성공적 통합의 기초가 된다는 국민의 지지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을 탈출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지지는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직업 훈련 강화, 농공단지로의 거주 유도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취업 증대를 위해 이들을 고용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고용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채용박람회’ 형식의 사회적 기업과 북한이탈주민의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함으로써 고용 기회 확대하는 정책도 고려해 봄직 하다. 일자리의 개수만 확대하기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이뤄지는 직업훈련보다, 훈련 기간을 연장하여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직업훈련의 방향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한편 지방 농공단지에 거주지를 배정하고, 지방 이주시 장려금 지급, 공업단지 취업 알선 및 소규모 농지 제공 등의 유인책을 통해 수도권 이주민의 분산 효과와 함께 지역 개발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방 농공단지에는 타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언어나 문화차이로 인한 정착의 어려움이나 차별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증하고 있는 여성 및 청소년 등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탁아 및 육아 서비스 제공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여성 고용을 보장하는 탈북여성고용할당제와 여성 가장의 취업을 지원위한 여성고용지원금 제도 등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단독으로 탈북한 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제도 및 북한이탈주민 가족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영유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제공 등의 맞춤형 지원제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제도의 확대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정책마련도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북

한이탈주민의 낮은 학력을 개선하도록 진학 및 장학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멘토링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진학과 취업 케이스를 선별하고, 일종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하우와 경험 및 정보를 전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국내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한 학력을 부여하고, 우수 학생 및 상급 학교 지원시 장학금 지원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 과정에서의 중도탈락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북 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및 탈북 청소년 전문 교사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혜택 확대 및 정기 건강검진 서비스,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 등의 추진도 필요하다.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지원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하나원 출소 이후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이 지닌 각종 산부인과 질환과 인신매매, 학대 등의 외상 경험의 치료를 위한 탈북여성 전용 병원 설립 및 정신과 진료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정부주도형의 단편적인 의료비 지원 모델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폭넓고 입체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와 NGO, 사회복지재단 등과 공공기관, 전문의료기관이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 캠프 개최, 심층 면접을 통한 불안 심리 치료, 백신 접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취업 장려금 기준 완화, 적성에 맞는 취업 유도 등의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정기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취업장려금 제도의 현실성 제고 및 적성에 맞는 취업 지원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강의 위주의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보다는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과정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과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적성 검사를 통해 적성에 맞는 취업과 직업훈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97